

한반도 주변바다의 국제적인 고유명칭과 해역범위

한 상 복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장

우리나라는 반도의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삼면이 바다로 되어있으며, 동쪽에 있는 것이 동해(東海), 서쪽에 있는 것이 서해(西海), 남쪽에 있는 것이 남해(南海)이다. 이들 해역의 구분은 대략적인 것이고 그 시작은 분명하나, 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다는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에 둘러싸이는 것이 보통의 예이기에 그 고유명칭은 국제적인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서해는 국제적인 고유명칭이 황해(黃海)이다. 대표적인 국제언어인 영어로는 Yellow Sea 혹은 Hwang Hai로 나타내지만 우리는 그대로 따른다. 동해를 국제적인 명칭으로는 일본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하며, 이 명칭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한반도 주변 바다의 국제적인 고유명칭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바다의 고유명칭에 대한 국제적인 경향

1921년 창설된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서는 창설 초기부터 국제적인 수로(水路)의 안전을 위해서 바다의 대략적인 경계선을 그어서, 통상적으로 어느 바다 하면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들을 수년간 회원국 의견들을 정리하고 합의해서 1929년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라는 책자를 IHB특별발행물 제23호로 출판했다. 당시에는 IHO가 IHB(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로 불리던 시절이었으며, 3해리 밖의 바다는 공해로 해양의 자유활동이 강조되던 시대였다. 이 책의 번역을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고 하는 것보다 간단히 <바다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바다의 경계>는 1937년 제2판이 나왔고, 1953년 제3판이 나왔다. 개정판이 나온다는 것은 국제수로기구에서의 합의 결과가 새로이 나왔다는 의미가 된다. 이 책이 바다의 명칭과 그 범위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존의 명칭이 가지는 해역 경계를 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국제적으로 해역의 경계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경우, 많은 국제기구들이 국제수로기구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권장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1929년부터 우리나라 주변바다의 국제적인 고유명칭이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바다가 황해(黃海, Yellow Sea, Hwang Hai)로 전라남도 진도에서 맹골군도를 거쳐 제주도에도 이르고 난 다음 북위 33도 17분 이북의 중국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이는 바다라고 했다. 제주도 남쪽 바다를 동중

국해(East China Sea, Tung Hai(東海)라 부르면서 그 북쪽 경계를 북위 33도 17분에 위치한 중국대륙 해안에서 제주도 남쪽을 거치고, 일본 고토 열도 남단을 지나 규슈의 노모자기에 이르는 곳으로 정했다. 일본해(Japan Sea)는 동중국해 북동쪽 경계를 지나 시모노세키 해협, 쓰가루해협, 소야해협 등을 지나고 북위 51도 45분에 위치한 투익곶(Cape Tuik)과 Cape Sushcheva로 둘러싸인 바다로 되어 있다.

바다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 이후 크게 변화되어 영해의 범위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늘어나고,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는 시대로 접어들어서 국제수로기구에서도 <바다의 경계>를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를 느껴 회원국들간 협의를 거쳐서 1986년 개정을 시도했으나, 회원국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받지 못하여 부결된 바 있다. 1994년 11월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연안국들의 힘은 더욱 커져서 바다의 명칭문제까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었고 구 시대에 정해진 잘못된 결정들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2002년 8월 국제수로기구에서는 각 회원국에 다시 제4판 재개정

안을 내 놓았는데, 제목이 <바다의 명칭과 경계(Names and Limits of Oceans and Seas)>로 바뀌어서, 기존의 경계문제와 함께 명칭문제도 다루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바다 명칭에 관한 국제적인 경향은 두 나라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바다의 명칭에서 불합리한 고유명칭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해양질서에 걸맞은 명칭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바다에 특정한 나라 명칭이 사용되는 것이거나, 한 나라를 기준으로 한 방향에 따라 붙여진 명칭들은 개명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 명칭이 일본해(Japan Sea)로 되어 있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크게 배척을 받고 있으며, 영국 네델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으로 둘러싸인 북해(North Sea)도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명칭으로, 새로운 명칭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의 바다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고유명칭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을 가진 바다는 객관적으로 뚜렷한 지리적 경계조건을 가져야 한다. 한 나라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바다는 그 나라에서 정해

진 고유명칭을 그대로 존중해서 국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두 개 이상 국가에 의하여 공유되는 바다가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해당국가에서 단일명칭으로 합의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공통적인 명칭으로 합의 될 때까지 각 나라의 언어로 된 명칭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들이 현재 국제사회의 기본 틀이다.

한반도 동쪽에 있는 바다

한반도의 동쪽과 일본열도 그리고 사할린 사이에 하나의 바다가 있다. 우리는 이 바다를 동해라고 불러오고 있으며, 우리 역사기록에도 기원전 37년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했다. 현재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은 일본해이고 이 이름은 1797년 프랑스 탐험가 라 페루즈(La Perouse)의 항해도첩이 출판되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고, 1850년대에 이미 국제적으로 정착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은 바다에 고유명칭을 나타낼 필요성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우리는 이 바다에 국제적으로 East Sea(동해)라고 고쳐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일이다.

일본해를 새로운 이름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바다에 한 나라의 국호를 쓴다는 것은 연안국들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방해요소가 될 뿐이다. 바다 이름을 고치는데는 그 핵심적인 상대국과 먼저 협의해야하고 서로 협력하는 기본 속에서 합의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한다. 나라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고, 또 방향성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오래 전부터 Orient Sea 혹은 Blue Sea로 부르자고 제안해 온 바 있다. 국내용으로는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부르면 되지만, 국제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어인 영어식으로 작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ast Sea는 방향성에 이해서 불려지는 명칭으로 사방이 육지와 섬으로 둘러싸인 이 바다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1986년의 국제수로기구 시안(試案)에는 이 바다의 범위가 종전과 달리 사할린 북쪽을 별도로 Gulf of Tartary(달단만)이라고 독립시키고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의 바다에 두 개의 명칭이 있게되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시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달단만은 이 바다의 일

부를 이루고 있으니 독립된 명칭부여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신 이 바다의 남서쪽 경계를 대한해협,의 최단거리와 해양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울산에서 가와지리미사끼를 잇는 선으로 축소해서 대한해협을 황해와 동중국해 등과 연결되는 해역으로 독립시켜야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당사국의 관계전문가들이 서로 협의하고 하나의 합리적인 고유명칭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한다. 지금 국내에서는 East Sea로 하자고 주장하는데만 정신을 쓰다보니 우리가 남해라고 부르는 해역도 East Sea가 되는 년센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된다. 만약 동해를 계속해서 주장한다해도 그 영문명칭은 East Sea가 아닌 Donghae(동해)여야 한다.

한반도 서쪽에 있는 바다

한반도 서쪽에 중국대륙과의 사이에 하나의 얇은 바다가 있다. 이 바다를 우리는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해라고도 하지만 국제적인 고유명칭으로 황해(黃海, Yellow Sea)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리도 그 이름에 익숙해 있다. 황해는 프

랑스의 지도학자 당빌의 1737년 지도첨으로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이름인데, 그 뿌리는 조선 팔도의 하나인 황해도에 있음을 이미 필자가 밝힌 바 있다. 1986년의 시안에는 종전에 황해로만 되어있던 곳에서 발해(Bo Sea)와 요동만(Liaodong Gulf)이 각기 독립된 해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발해는 황해 북부를 이루는 황해의 일부이고, 요동만은 발해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학자들과 의논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해의 남쪽 경계도 중요한 지형지물인 양자강 하구에서 제주도를 연결하고 또 진도 서쪽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이미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한 해역의 지리학적 구분은 1936년에 정리되었으므로 그것을 현대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 한반도 서쪽에 있는 바다의 국제적인 고유명칭인 황해(Yellow Sea)는 모두 즐겨 쓰는 고유명사이기에 이에 대응하는 한반도 동쪽의 바다 명칭이 Blue Sea(靑海)가 되기를 바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황해의 해역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한다. 황해 전체의 명칭에서 일부의 바다를 중국의 내해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중국의 의견만 반영되도록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남쪽에 있는 바다

한반도 남쪽에 있는 바다를 우리는 남해라고 불러오고 있지만, 일본 규슈와 제주도 사이에 형성된 해협을 일컫고 있기에 대한해협(Daehan Haehyup, Korean Channe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기에 독립적인 명칭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내해 Seto Naikai로 독립된 명칭과 해역을 가지고 있는 것과 구분이 된다. 대한해협은 영문으로 표기할 때 Daehan Haehyup(대한해협)이라고 함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 Korean Channel 이라 함도 무방하다. 그러나 바다의 명칭에 국가 명칭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대국에서 항의하면, 이것도 다른 좋은 명칭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한해협은 동해, 황해, 동중국해 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해역으로 특징적인 곳이다. 이 해역의 지리학적 구분도 이미 1936년 정해졌다.

국제적인 바다 이름 고치는데 협의가 필요하다

1737년 프랑스 지도학자 당빌의 지도첩이 황해(黃海, Yellow Sea)를 국제고유명칭으로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당빌의 지도첩은 중국전역을 과학적으로 측량한 결과를 담고 있어서 그 권위가 인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1797년 라 페루즈의 항해도첩은 일본해와 대한해협 명칭부여의 기본이 되었으며, 1798년 영국의 애로우스미스(Arrowsmith)는 이들 명칭이 국제적인 고유명칭으로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들은 최초의 과학적 탐사를 종합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861년 영국에서 발행된 CHINA PILOT 제3판에서는 한반도 주변 바다 명칭이 이미 당시에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1953년 국제수리기구에서 제3차로 개정된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에서도 이 흐름은 그대로 있었고, 또 현재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제4판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 197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제4판의 개정은 1994년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세계 연안국들이 바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에 살고있는 우리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해진 한반

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하는 일은 그것을 개정하자고 상대국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건설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는 일이다. 과거의 국제적인 결정사항은 비록 우리가 당시에 주권국가를 이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알맞은 새로운 명칭으로 고치도록 협의하는 일이 중요하다. 협의에는 상대가 있으며 상대를 인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수반된다. 우리를 위한 우리만의 주장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하기에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해박한 지식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다.

국제수리기구에서는 2002년부터 <바다의 경계>가 아닌 <바다의 명칭과 경계>라는 지침서를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좀 더 넓고 크게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 바다의 명칭과 경계를 어떻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지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내적인 합의점부터 뚜렷이 찾아야 한다. 기존의 주장이 잘못되었으면 과감히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지노나 해도 그리고 문헌들에는 그 독창성이 인정되면서 후세에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범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